

보 도 설 명 자 료

(’20. 3. 26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「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」 사업은 연중 46차례 사업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하여 연말 사업종료 시점에서 공고물량을 모두 배정하는 구조이며, 매년 계획물량에 맞춰 신청을 받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(전자신문 3.2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- ◇ 2017년부터 추진한 「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」 사업은 연중 4-6차례 사업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하여 연말 사업종료 시점에서 공고물량을 모두 배정하는 구조이며, 매년 계획물량에 맞춰 신청을 받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
- ◇ 3월 26일 전자신문 <“전기료 부담” 전기차 충전기 신청 ‘미달’> 제하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1. 기사내용

- 2020년도 「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」 사업신청건수 미달사태 발생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2017년부터 추진한 「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」 사업은 연중 4-6차례 사업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하여 연말 사업종료 시점에서 공고물량을 모두 배정하는 구조임
 - 이에 2017년도 5차례, 2018년도 2차례, 2019년도 5차례 공고물량 대비 신청수가 적었으나 추가공고를 통해 계획물량에 맞춰 신청을 받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
 - 또한 2020년도 1차 공고(’20.3.3~3.16)가 2019년도 추경예산 사업 공고(’20.1.29~2.14)와 유사한 시점에 이루어져 사업신청건수가 분산되는 효과가 발생하였음

※ 문의: 신에너지산업과 최연우 과장(044-203-5390)/ 손현경 주무관 (5393)